

# 광복 73주년, 스타들도 “대한 독립만세”

송일국·김소현·솔비 등 SNS서 순국선열 기려  
태극기·나비팔찌·무궁화·이모티콘 등 게시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많은 스타가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올리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배우 송일국은 인스타그램에 대한·민국·만세 삼등기가 베를린 장벽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베를린 장벽 앞에서 때마다 베를린에서 만난 지인이 선물(?)해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우리도 진정한 광복!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며-’ 라고 적었다.  
김소현, 서예지, 채수빈, 임주환 등 배우들과 워너의 강승윤, 김진우는 태

극기 사진을 게시했다.  
김소현은 태극기 사진과 함께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채수빈은 태극기가 바람에 날아가는 사진을 올리고 ‘오늘은 73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는 글을 적었다.  
가수 솔비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나비팔찌를 든 자신의 사진과 항일 독립운동 태극기 사진을 함께 올리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을 떠올려봅니다.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순국선



좋아요 200,611개  
songilkook 베를린장벽 앞에서 때마다 베를린에서 만난 지인이 선물(?)해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만세! 우리도 진정한 광복!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바라며-

배우 송일국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광복과 남북 통일을 염원했다.

열들과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우리의 할머니들도 함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라는 글을 남겼다.



좋아요 127,399개  
wow\_kimsohyun 잊지 않습니다

배우 김소현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배우 배정남은 무궁화와 태극기 그림 사진과 태극기 이모티콘을 게시하고 ‘8.15 광복절. 대한 독립만세’ 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 레드벨벳 해외투어

내달 8일부터 대만 등

그들 레드벨벳이 오는 9월 8일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해외 투어에 나선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이번 투어는 지난 4~5일 서울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레드메어’(REDMARE) 연장선에서 이뤄진 다.

대만 타이베이, 싱가포르 공연도 예정됐다.

레드벨벳은 지난 6일 발표한 미니앨범 ‘서머 매직’(SUMMER MAGIC) 타이틀곡 ‘파워 업’(POWER UP)으



로 국내외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아이튠스 종합 앨범 차트 세계 28개 지역 1위, 중국 샤미뮤직 종합 앨범 차트 1위도 기록했다.

SM은 “레드벨벳이 ‘파워 업’으로 여름 최강자다운 면모를 입증했다. 해외에서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위안부 피해 여성위한 프로젝트 앨범

## 한정판 LP ‘이야기해주세요’ 나왔다

이효리·송은지등 참여

여성 음악가들이 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위한 프로젝트 앨범 ‘이야기해주세요’가 한정판 LP로 출시됐다.

14일 LP를 제작한 페이퍼레코드레 따르면 2012년과 2013년 파트.1과 파트.2가 잇달아 발매된 앨범 ‘이야기해주세요’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이날 한정판 LP와 LP미니어처 CD로 발매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을 위한 외침과 속삭임”이란 부제의 이 앨범은 이른바 ‘홍대신’에서 활동하는 여성 음악가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밴드 소규모아카시아 출신 송은지 제안으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이야기를 알리고자 여러 음악가들의 참여와 세 차례에 걸친 모금 공연 등을 통해 제작됐다.

앨범에는 이효리, 이상은, 남상아, 한희정, 송은지, 이아림, 박혜리, 지현, 트램폴린, 빅베이비드라이버, 로터스 프로젝트 등 장르와 영역을 아우른 뮤지션이 참여했다.



한희정의 ‘이 노래를 부탁해’, 이효리의 ‘날 잊지말아요’, 이아림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등 10곡이 수록됐으며 이상은의 ‘성녀’를 제외하고 모든 곡이 새롭게 녹음됐다.

페이퍼레코드 측은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떠올리며 각기 창작한 곡들로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며 “LP에 향기를 넣는 시도를 해 LP를 꺼내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그니처 향이 느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재킷에는 2015년 여성가족부 주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학생·청소년 작품 공모전 최우수 수상작인 정서한 씨의 ‘꽃잎에 가려진 얼굴 없는 슬픔’이 담겼다.

# R&B 슈퍼스타 더 위켄드, 12월 내한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29일부터 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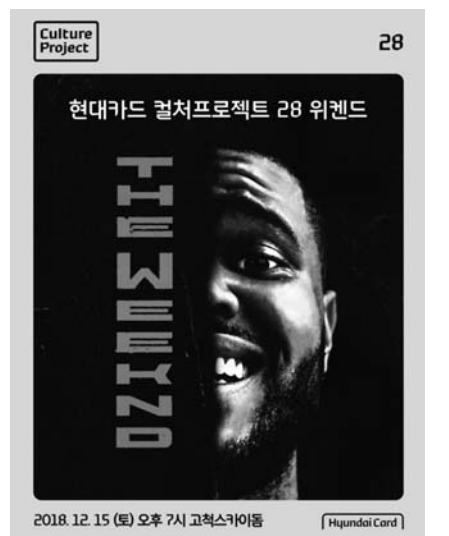
R&B 슈퍼스타 더 위켄드(The Weekend·28)가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를 통해 내한한다.

현대카드는 오는 12월 15일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28 더 위켄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위켄드는 R&B와 힙합, 록, 일렉트로닉, 펑크를 섞은 PR R&B를 대중음악 주류로 밀어 올린 뮤지션이다.

199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그는 2010년 프로듀서 제러미 로즈와 함께 만든 싱글 ‘왓 유 니드’(What you need), ‘로프트 뮤직’(Loft Music) 등을 만들었고, 이 노래들이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며 음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2013년 발표한 첫 정규앨범 ‘키스 랜드’(Kiss Land)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2위에 오르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그래미어워즈에서 3회, 빌보드 뮤직어워즈에서 8회 수상했으며 대표곡으로는 ‘캔트 필 마이 페이스’(Can't Feel My Face), ‘더 힐스’(The Hills), ‘언드 잇’(Earned It), ‘스타 보이’(Starboy)가 있다. 드레이크, 켈



드릭 라마, 시아, 아리아나 그란데 등과의 협업도 화제가 됐다.  
현대카드는 “위켄드는 세계 대중음악의 새로운 흐름으로 급부상한 PBR&B의 현재를 상징하는 아티스트”라며 “팬들이 위켄드의 음악 세계를 직접 만날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 티켓은 오는 29일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예매할 수 있다. 현대카드 소지자는 28일부터 20% 할인된 가격에 예매가 가능하다. 19세 이상 관람가.



슈퍼주니어 D&E 동해(왼쪽)·은혁.

# “음원 성적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슈퍼주니어 D&E,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표

슈퍼주니어 동해(본명 이동해·32)와 은혁(본명 이혁재·32)이 유닛(소그룹) 슈퍼주니어 D&E로 돌아왔다. 13일 서울 강남구 정담동 SM커뮤니케이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재치 있는 입담을 과시하며 인터뷰 분위기를 금세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슈퍼주니어 D&E가 국내에서 앨범을 내기는 3년 5개월만. 2015년 3월 미니 1집 ‘더 비트 고즈 온’(The Beats Goes on)을 낸 뒤 각자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 제대 뒤에는 슈퍼주니어 활동과 월드투어를 병행하며 음악 작업

을 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동해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다. 은혁은 랩메이킹에 참여했다. SM 가수들이 앨범에 자작곡을 신기란 쉽지 않다. 철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친다. 그럼에도 동해 노래가 타이틀이 된 건 그만큼 반응이 좋았다는 뜻이다.  
“은혁이와 15살 때 처음 만났으니 어느 때였는지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곡을 받아보면 ‘은혁이는 이 부분에선 안 어울리는데’ 하고 아쉽더라고

요. 그런 답답함에서 곡 작업을 시작했어요. 총 6개월 걸렸는데, 3분짜리 노래에 6개월 시간을 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래 기다려주신 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면 좋겠어요.”(동해)

연차가 쌓일수록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기 쉬운데, 슈퍼주니어 D&E는 대중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왔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슈퍼주니어는 좀 더 글로벌한 도전을 많이 합니다. 멤버들의 군 복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과거에 안주하기보다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래야 세계 팬들이 우리 음악을 쉽게 받아들일 테니까요. 라틴팝에 도전한 것도 그때

문이에요. 반면, 슈퍼주니어 D&E는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있어요. 트랩 힙합을 선택한 것도 젊은층이 힙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대중이 우리 음악을 친숙하게 여기면 좋겠어요.”(은혁)

슈퍼주니어가 음반 판매 성적은 양호하지만 음원차트에선 힘을 잃어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혁은 “고민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공연이나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음원 성적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음원시장이 크게 투명한 것 같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수가 음원성적 하나로만 평가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꾸준히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슈퍼주니어 D&E의 미니 2집은 16일 공개된다.

# 방탄소년단, 미 레코드산업협회 ‘골드’ 인증

한국 가수 최다 기록

그들 방탄소년단이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로부터 세 번째 ‘골드’ 인증을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5일 미국 레코드산업협회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페이크 러브’(FAKE LOVE)를 골드 디지털 싱글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마이크 드롭’(MIC Drop)과 ‘DNA’로도 골드 인증을 받으며 한국 가수 최

다 인증 기록을 세웠다.  
미국 레코드산업협회는 디지털 싱글과 앨범 판매량에 따라 골드(50만 이상), 플래티넘(100만 이상), 멀티 플래티넘(200만 이상), 다이아몬드(1,000만 이상)로 구분해 인증한다. 디지털 싱글은 디지털 다운로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등을 포함해 집계한다.

‘페이크 러브’는 지난 5월 발매된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타이틀곡으로 음명인 줄 알았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 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0위에 올랐으며,



세계 52개 지역 아이튠스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은 14일 미국 빌

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의 ‘소셜 50’ 차트에서 57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